

---

# 한국 디자인 원형 연구

## Korea's Design Prototypetyle

김복경

신라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부

Bok-Kyung Kim(bkkim@silla.ac.kr)

---

### 요약

디자인원형은 조형원리인 성상적인 면과 물리적인 성격의 형상적인 면으로 설명되어진다. 원형은 문화 전반의 사상과 배경의 핵심으로 생활 공예 및 건축, 미술의 제작의도와 작업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 민족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생활 전반에 내재한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공간을 축으로 하여 디자인 원형을 형성시켜왔다. 현대 한국 디자인의 원형은 조선 후기로 볼 수 있는데 상층문화와 기층문화가 융합하면서 활발한 문화가 전개되었고, 이런 조선의 문화와 예술은 오늘날 우리 디자인과 한국 미의 근간이 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디자인 원형을 형성시킴에는 지형과 기후 등과 같은 자연 환경적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런 자연 환경적 요소는 건축과 실내 환경의 형태뿐만 아니라 예술과 생활 공예 전반의 디자인 의식을 주도해왔다.

한국디자인은 우리 민족의 기질과 정서로서 명분과 본능에 충실한 장인 정신을 낳았고 이성보다는 감성적 유희성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여, 재료와 형태감에 순응하게 하는 자연주의를 형성시켜왔다.

이와 같은 우리의 디자인 원형의 경로 추적과 연구는 미래 사회의 새로운 디자인 identity의 에너지로써 우리의 디자인 발전에 중요한 테마라 할 수 있다.

■ 중심어 : | 디자인 | 문화 | 원형 | 아이덴티티 |

### Abstract

Design prototype is described from the stately aspect as a principle of formative art, and from the shapeable aspect of physical feature. The prototype can be a common denominator which is contained in one nation's culture, art and life, as the thing which corresponds to the daily industrial craft, architecture and art's production intention and activity with the thought and background of the culture. We have formed the design prototypes with time and space in the process which absorbs and integrates the new culture. Modern Korean design's prototype can be seen in the late Chosun. As the upper culture and sub-culture were combined, the active culture was developed. Nobody can deny that Chosun's culture and art becomes a basis of today's design and Korea's beauty.

In creating the design prototype, the natural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opography and climate are the most important. Such natural environmental factor led the design recognition of art and craft art, as well as an architecture and indoor environment's form.

Korea design produced the artisan sprite which is devoted to a moral duty and instinct as our nation's nature and emotion, and ensured the emotional process not the rational process. So, it created naturalism which accepted the material and shape.

Our design prototype's path tracking as an energy of future society's new design identity, can be the important theme for our design development.

■ keyword : | Design | Culture | Prototyre | Identity |

---

\* 본 논문은 2007년도 신라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입니다.

접수번호 : #071022-003

접수일자 : 2007년 10월 22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05일

교신저자 : 김복경, e-mail : bkkim@silla.ac.kr

##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들도 삼성과 LG등 우리기업을 분석하기에 이르렀고, 공통적으로 기술, 디자인경영과 투자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앞으로의 디자인 전략과 Identity의 확립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디자인은 급속히 성장했지만, 아직 디자인의 본질적 문제의 접근과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한국디자인만이 제시할 수 있는 창의력과 차별화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의 문제를 “문화 기술”이라는 좀더 넓고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문화 원형의 적극적인 탐색은 이런 디자인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재 우리의 조형의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의 원형과 조형의식의 요소들을 탐구하여 디자인 원형의 추출을 통해 우리의 디자인 발전 가능성과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II. 문화의 원형(原型)

### 1. 원형의 본질

원형<sup>1</sup>의 본질은 성상(性相)이라는 정신적 측면과 형상(形狀)이라는 물리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성상적인 것은 조형원리로 제작의도와 같은 것이며, 형상적인 조형원은 형상체계로 제작물에 해당된다.

E.Rosch(로슈)<sup>2</sup>의 「원형이론」에 의하면, 원형이란 가장 높은 단서 타당도를 가진 하나의 범주으로써 그 범주에 속하는 대부분의 구성체에는 공통된 어떤 세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민족이라는 범주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속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통적인 속성과 유사성에도 단서 타당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형은 항상 구체적이며 강하게 인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의식과 밀착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형은 집단의 공유성과 시대적 연결성의 축척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는 사상, 문화, 문명, 전통의 핵심이며 공예와 건축, 미술의 제작의도와 작업행위에 관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전반의 시·공간에 내재한 공통분모 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원형의 속성은 주체성과 변질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끝없이 변화하면서도 본질을 유지하려고 한다.

과거의 요소가 동시적으로 공존하며 새로운 문화가 통합됨으로써 변용이 가해지고 공유된 원형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중심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그림 1]은 원형의 구조로서 시간에 의한 시점과 문화적 요소의 밀도성에 의해 원형이 형성되어 감을 도식화하였다. 역사적 결과물로 나타난 문화유산 역시 당연히 이런 속성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 모두의 조형 활동에도 전통적 직관인 기억과 경험들이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형요소의 추적과 분석은 한국에 대한 추상적 개념의 원형적 심상을 찾을 수 있는 단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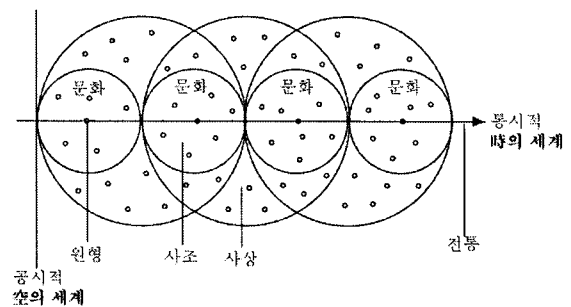


그림 1. 원형의 구조

학자에 따라서는 원형을 심층구조, 인지구조, 사유체계, 조형원리, 미의식 등으로 설명한다. 이런 용어는 축

1 원형이란 영어로 'Archetype'과 'Prototype'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보통은 같이 사용되고 있다. 굳이 구분해 본다면 Archetype은 인간의 정신 내부에 존재하는 조상이 경험한 흔적으로, 조형(造型)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Prototype은 본보기나 모범이 되는 형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원형(原型)'으로 파악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 E. Rosch는 모든 개념은 원형으로 표상되어 있다고 「Cognitive Psychology」와 「Principle of Categorization」에서 언급하고 있다.

적된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의 본질적 원형을 함축하는 언어이며, 게슈탈트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들이 문화적 핵심어임에는 틀림없다.

문화는 어떤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문화는 상호의존적이며 한 문화에 대한 환경의 특성과 비중은 바로 그 문화를 결정하는 단서이다.

서양에서는 문화의 시각적 의식이 중요하였으며, 동양에서는 감정과 관념의 무의식을 강조했다. 물론 어떠한 표상 없이는 지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문화에서는 구체적 사물의 대상과 지각의식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는 시각적인 것은 물론 의식의 현상인 사회적 항상성의 지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그가 살아온 역사, 종교, 철학 등의 경험을 통하여 축적되어 온 기억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저장된 기억은 상상된 상징이미지를 창조하게하고 이런 생성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조형성의 형태를 만들게 한다. 우리는 문화의 장을 떠나서는 조형예술을 논할 수 없으며, 예술은 이런 사고와 이미지를 가장 구체적인 심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우리의 문화원형 연구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문화에는 고유의 민족 원형이 존재하며, 어떠한 디자인에도 국적(ND)<sup>3</sup>이 있어, 모든 조형 활동에는 모태추적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문화의 원형은 우월로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문화현상은 원형여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적 보편성에 의해 적응과 파괴를 반복하고, 생성과 멸망의 선택 또한 문화 주체자의 몫인 것이다.

## 2. 한국 문화의 원형구조

오늘날 우리의 조형 원형을 연구함에 있어 시간적 축의 기준을 설정한다면, 근대를 뛰어넘어 조선후기를 한국미의 원형 형성기라 볼 수 있다. 1900년대 초부터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 문화는 상당부분 단절되었으며, 이후 정치적, 사회적 황폐로 다양한 문화적 융합과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대중과 문화를 리더 해야

했던 계층형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조형예술 활동에 대한 의지와 에너지도 부재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조선은 선비들의 문화의식이 높아 문화 핵심인 예술과 생활미학이 나름대로 발전하였으며 이런 조선후기의 전통예술에 나타난 정서와 분위기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화활동의 원형으로 지속, 유지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조선은 중기까지 상층문화인 양반이 종교, 법률, 윤리, 예술을 주도하였으며, 기층문화인 상인과 노비의 하부구조는 노동과 경제를 담당했다. 하부구조인 기층민들의 상업과 농업기술의 발달로 경제력이 증대되고 10%의 양반수가 50%[2]로 늘어나면서 계층의 융합으로 인해, 문화의 전반에 나타나 조형예술의 수준은 향상되었다. 더욱 독특한 점은 상층문화도 기층문화에 관심을 보이면서 문화의 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풍속화와 시장 손님들을 모으려고 시작한 탈춤, 양반들의 해석과 관여가 있었던 판소리, 대중화를 위해 출발한 분청사기의 도자기 생산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조선 음악은 귀족의 정악과 대중의 속악이 존재하였지만, 현재 우리 음악의 원형은 서민음악인 속악에 속하는 단가, 민요, 풍물, 판소리, 범패 등으로 자유롭고 흥겨운 음악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무용 역시 당악정제인 궁중의 종묘제례보다, 서민의 향악정제인 살풀이, 승무, 탈춤이 보편화되었으며, 음악과 무용의 미학 즉흥성과 해학성, 역동성이라는 예술 원형이 존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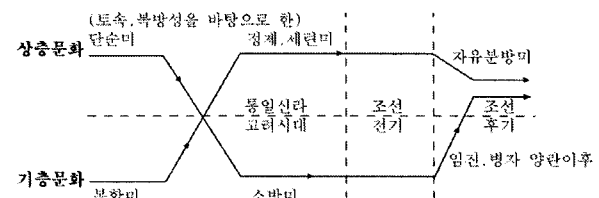


그림 2. 조선의 문화 구조도

이와 같은 문화의 구조변화는 예술의 변화는 물론, 노동생산과 관련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층민들의 생활에 노출된 생산기

3 Native design. 태어난 나라가 있는 디자인으로 1979년 김영기 선생이 한국디자인 학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구들과 생활용품인 Vernacular제품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장인이나 기술자가 아닌 자급자족에 의한 기층 민들의 생활용품들이 수준 높은 민예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한국미의 원형

조선의 미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 중 주요한은 조선미의 대표로 자유분방함을 꼽고 있는데, 형식미인 중국의 미에 비해 조선은 자연스럽고 천진스러우며 무게획성과 질박함이 있다고 했다.

판소리의 파열음, 대금의 청소리, 거문고의 싸랭이 주법인 투박함과 거친 표현은 덜 완전한 곡선의 미이고, 덜 채운 여백의 미이며, 덜 꾸민 소박의 미가 한국의 자연 순응성의 대표적인 사상이라 지적했다.

독일의 안드레 에카르트는 조선의 미를 불교, 샤머니즘, 유교와 같은 복합 종교가 민족의 생활 가치를 형성하였으며 예술의 바탕으로 보았다. 조형의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과 평온함은 단순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며, 소박함과 장식 절제의 단순미를 예찬했다. 에카르트는 조선의 서민 건축과 탑은 복잡성과 무의미한 반복성이 아니어서 짜임새가 있으며, 특히 계산된 지붕의 경사는 섬세하고 고상하다고 했다. 도자기는 꾸미지 않은 조용함에 세련미가 있지만, 창작의 의지가 너무 소극적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창작 주체가 장인이 아닌 사대부가 중심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진 해석으로 생각되어 진다.

고유섭은 조선미의 으뜸을 기교적인 완벽주의를 거부하고 자연적 환경이나 재료의 친화성을 애호한 자연 순응이라고 했다. 그런 자연스러움은 의도적인 의미나 욕구에 얽매이지 않아 예술과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 세계관으로 다소 섬약한 비애의 미로 비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니기무네요시는 중국의 미를 강대하고 태연한 형태라 하였으며, 일본은 현란한 색채이고 조선은 선의 아름다움과 비애의 미로 표현했다. 다소 감성적인 표현으로 묘사된 비애의 미는 우리의 역사적 상황에 집착한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조선의 미를 미학과 대중 예술학의 장에서 다루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용준은 그 나라의 정치적 범위와 지리적 조건이 모든 예술 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 시대의 미는 형태와 시간을 초월하여 공통된 감각의 본질로 지적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미의 원형은 맑고 여유로운 청아와 고담의 성격이라 했다.

에블린 맥킨은 선과 형으로 한국의 미를 특징지으며, 결점을 수용하고 그 결점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선비들의 안빈낙도로 마치 현실적 내핍성을 수용하려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디트리히 쾨켈은 조선의 미를 솔직 담백한 무기교로 기술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성의 발로로 보았으며, 이런 점은 시대를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위 내용에서와 같이 조선의 미는 자연주의로 조선의 지형과 풍토에 순응하며 조화하려는 소박함이 우리 조형전반에 내재해 있으며, 이는 한국문화와 정서의 원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III. 한국조형의 원형 요소

### 1. 자연환경

우리의 조형의식은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지각의 방식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집단적 세계관에는 환경이라는 요소가 절대적인 작용을 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형적 관계는 인류지리학의 「환경결정론」<sup>4</sup>에서 풍토는 자연적 현상 외에 심리적인 상태까지도 지배하며 심리적 주관과 물리적 객관이 일치하여 나타난다고 했다. 즉, 지리학적 현상은 감성학적 심리현상에 관여하여 형태, 색채, 질감, 선, 윤곽 등과 같은 미의식 요소를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 1.1 지형

우리지형에 대한 조형적 분석은 우리 문화의 의미구조와 내용사이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시사점

4 1982년 라켈(Fridrich Ratzel)이 「인간은 자연환경의 산물」이라는 환경결정론 발표

이라 할 수 있다. 지형은 산이라는 형태를 부여하고 우리는 그 형태로부터 수많은 형상의 이미지를 갖는다. 우리의 산은 넓은 들판에 우뚝 선 형이 아니라 선과 등선이 연결된 산줄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두드러진 질량적 형태로는 지각되지 않는다. 또한 노년층의 지형으로 산지의 경사가 완만하고 급류성 하천이 적으며, 곡벽하부가 U자형이므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산, 강, 길에서 나타나는 부드러운 지형의 형태가 우리의 의식과 정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연스런 선의 역감(力感)은 우리 문화와 예술 원형의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

### 1.2 기후

우리의 겨울은 한랭건조하고 여름은 온난다습한 4계절의 기후를 가지고 있다. 기후는 인간의 물리적, 정신적 활동력에 영향을 주며 기후조건과 그에 따른 온도 감각은 인간의 감각적 두께를 결정하는 감성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후에 대한 적응방법은 생활습관과 의식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온도, 습도, 강수량과 같은 환경은 정서와 조형이라는 상관관계를 형성시켰다. 우리의 정자는 자연에 대한 철학적 태도이며 온돌과 마루 역시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벽돌, 진흙, 돌, 소나무 등의 재료 선택 역시 기후로 인한 문화와 조형성의 관계형성에 따른 결과물로 우리미의 원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1.3 소나무

우리의 지형과 지형적 조건으로 선택되어진 소나무는 단순히 자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문화의 의식과 현상학적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점토의 토양에서 적응할 수밖에 없는 소나무는 산의 능선과 부드러운 강의 흐름과 조화된 윤곽선으로 드러났고,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자유분방함과 역동성의 선은 문화 전반에 부각되어졌다. 이런 재료는 지역성과 시대성을 초월하여 공통적인 건축 재료로 선택되어 서민의 초가집에서 궁의 건축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적당히 노출된 소나무의 생명력 있는 자유로운 선과 질감은 우리문화 의식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2. 풍토 건축

조선의 건축은 단순히 건물 하나 그 자체로 조형성을 평가하고 규명하기에는 어려워 집합 이론으로 설명해야 하며, 또한 역사적으로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도 건축의 역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은 유교적 성격이 반영된 주거형태로 남성이 중심이 된 사랑채와 여성이 활동하는 안채 문화로 구별되어 있다. 소박한 절제의 미를 존중한 선비들의 사랑채와 샤머니즘적 여성 취향의 안채 문화는 나름대로의 조형적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 2.1 실내 공간

실내공간의 가구와 모든 장식에 유교문화가 반영되었는데 절제의 미를 지향했던 소박한 남성문화와 길상적 문양의 화려함과 색채 사용이 여성문화에 두드러졌다. 창살과 창호는 공간적 조형성의 미학을 반영한 것으로 시간의 개념을 가늠하는 시각적 이미지 외에 청각적 의식을 조형 내부에 드리우고 있다. 벽과 기둥 주춧돌, 서까래의 구조와 형태는 자연스럽게 내부의 구조물으로써 휼과 양감을 드러나게 하였다.

### 2.2 지붕

지붕의 형태는 우리 건축물의 성격과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지형 흐름인 산의 형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붕은 조형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 외에 시각적 요소를 결정하는 절대적 대상으로 초가와 기와의 지붕모두 우리의 자연지형의 형태를 그대로 닮아 있다. 처마곡선은 눈높이에 따른 시각적 효과를 반영하였는데 보는 위치에 따라 지붕이 갖고 있는 구조적 형태인 완만한 곡선은 우리 곡선의 흐름을 규명하는 상징적 대상이다. 표현에 따라서는 '결'로도 불리어지는 지붕 곡선의 맛은 중국과 일본의 것과는 확실히 다르며, 자유로운 비 규격화를 중요시하고 유교 건축인 사원은 물론 궁궐 건축의 지붕에서도 적용되었다.

### 3. 미술 공예품

미술공예품은 생활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태도와 문화의식의 표상이다. 조선 공예품의 특징은 선비나 사대부들의 높은 미의식으로 장인들의 기술과 합한 독특한 시스템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공예나 건축들은 양반들의 주문생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계층민의 교류가 자연스러웠다. 전 계층의 일상적 경험과 문화 의식은 가계와 지방마다의 독특한 양식을 형성하게 하였고, 생활 미술을 리드하던 상층문화가 서민예술을 자극하여 민예라는 Vernacular 디자인으로 발전되어졌다.

그러므로 조선의 Vernacular 디자인은 기능성과 실용성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추상성이 투영된 형태로 변화가 가능했었다. 조각보와 도자기, 민화, 풍속화들이 그런 예라 할 수 있다. 풍속화는 해학적 리얼리티가 돋보이며, 민화는 종교적인 샤머니즘과 불교, 도교의 가치관의 단순함, 소박함이 느껴진다. 조선 막사발의 거칠고 자유분방한 형태는 무기교적인 곡선미의 원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런 자유롭고 소박한 민예품들은 굳이 예술품과의 경계를 가지지 않고, 생활조형 전반에 나타났다.

의복 디자인에서도 우리는 자연스러운 둥근 곡선의 실루엣 표현이 한복 전반에 깔려 있으며, 부드러운 곡선의 흐름은 우리조형의 바탕이 되었다. 일반적인 한복의 색은 재료가 가진 자연의 색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여성과 어린이의 의복에서는 부분적으로 원색인 오방색에 의한 비례와 강한 대비를 주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전통의상은 소매와 치마곡선 모두가 직선을 강조하듯 드러내고 있다. 직선은 일본의 건축과 가구, 실내 공간 그리고 생활용품 전반에 지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직선에서 오는 모듈의 간결함과 의식적 정렬감은 일본 조형의 특징으로 우리의 감성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 IV. 한국디자인 원형의 특징

한국디자인 원형은 한국의 조형 의식과 미의식에 깊

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나 행동양식과 같은 문화 전반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같은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과도 디자인 원형에서는 사뭇 다른 특징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디자인 원형은 우리 민족적 기질과 고유의 특질로 우리만의 디자인 기호를 가졌으며 그것은 우리만의 디자인 감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디자인 원형은 미국이나 일본의 디자인처럼 철저한 상업주의적 정신으로 무장하거나 비즈니스의 의지가 충만해 있지는 않았으며, 작업인의 명분과 작업에 대한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양반과 같은 주문자들의 요구는 있었으나 장인들은 형상의 주체자로서의 역할의식이 분명하였다.

또한, 독일의 디자인과 같이 완벽한 기술성과 합리주의적 생산방식에 얽매이기보다 작업자의 흥미성과 독창적 작업방식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즉흥성과 상상력과 같은 창의성으로 작업의 연륜을 가늠하게 했다.

우리의 디자인은 억척스러운 강인함으로 생명력과 역동성을 드러내거나, 고요한 절제미로 여유로운 우아함이 존재하는 묘한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극단적 양면성은 조선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화려한 안체의 여성공간과 절제된 미를 지향하는 사랑채의 남성공간의 존재로 볼 수 있다. 현대 한국 남성들의 디자인 의식에서는 아직도 색상이나 형태를 허용하고 수용함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일본은 일본 디자인의 identity를 자연주의로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디자인 원형의 또 하나의 키워드로 자연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자연주의를 소재와 재료의 자연주의라 한다면 우리는 의식과 형태 표현의 자연주의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유난히 꽃, 새, 바람, 달(花鳥風月) 등과 같은 소재를 선호하고 있으며, 목재의 재료에 집착하고 있다. 우리는 자연의 재료를 수용함을 지나 재료의 결점에 순응함으로써 생긴 형태감들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따라서 우리는 기능적으로 프로패셔널한 기교적 관심보다는 상황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감성의 반영을 디자인

인에 투영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디자인 원형들은 우리의 디자인적 감성이나 디자이너들의 작업 프로세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근대 디자인 방법론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현대사회는 디자인의 개념과 목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만의 새로운 디자인적 사고와 표현을 위해 우리는 한국디자인 발전을 위해 원형 특성의 지속적인 경로 추적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V. 결론

우리는 주변국들과 문화교류를 하면서 우리의 자연에 어우러지는 독특한 조형의식을 생성시켜왔다. 우리의 지형과 풍토를 닮고 종교와 사회현상의 에너지로 여과된 문화원형은 예술 활동에 잘 투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의 모든 생산도구인 Vernacular 디자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다.

특히, 조선시대는 우리 디자인의 직관인 문화원형의 형성기로 상층문화와 기층문화가 융합하면서 사회전반의 미의식이 향상되었고, 기층민의 생활용품들도 민예라는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바탕이 형성되었다. 이런 전통 미의식은 민속 디자인인 Vernacular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며 우리 문화의 원형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것이다.

그러나 자연주의를 지향한 자유분방한 유기적 곡선과 형태감은 대량생산체제인 근대 산업구조의 시스템에서는 적합하지 못했다.

우리의 디자인 원형은 수공예적 기술성인 개별적 감각을 중요시하였고, 가계나 지역성으로 다양성이 강하며, 규격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자유로운 심상등으로 근대 산업현장에서는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미래 사회는 종래의 산업기술을 탈피한 새로운 문화기술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형적 형태와 기능성을 중요시하던 디자인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과 조짐은 최근 문화의 트렌드에서도 나타나며 인간의 상상력과 감성을 바탕으로 한 문

화 콘텐츠가 주요한 문화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문화의 원형인 해학성과 자유로운 감각 그리고 자연 친화성의 의식들은 앞으로 디자인의 새로운 가능성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디자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기초적인 인문학적 연구와 방법론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들은 앞으로 우리의 디자인 발전과 방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T. Yamamoto, *Cultural Technology*, E.H.E.S.C, 1993.
- [2] 최준식, *한국의 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p.58, 2000.
- [3] 김영기, *The Theory of the Native Design*, Design net, 2000.
- [4] 박압중, *동서 디자인 비교를 통한 한국디자인의 원형탐구*, 滿實, 2000.
- [5] 김영기, *韓國人의 造形意識*, 창지사, 1991.

### 저 자 소 개

김 복 경(Bok-Kyung Kim)

정희원



- 1997년 3월 ~ 현재 : 신라대학교 교수
- VIDAK 이사
- 부산시각디자인협회 이사
- 한국여성디자인포럼 이사
- 아시아예술과학학회 이사

<관심분야> : 시각디자인, 디자인론, 디자인사